

숲 정 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에페 5, 21)

연중 제21주일

제1독서 : 여호 24,1-2a,15-17,18b

제2독서 : 에페 5, 21-32

복음 : 요한 6, 60-69

강론

소리

자, 너희도 떠나겠느냐?

강덕행 신부 / 용안 천주교회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고 시작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히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 예를 들어 '시집, 장가 잘가는 일, 돈, 명예, 출세하는 일' 등에 열중하고 있다. 세상의 가치를 좇다 보면, 실패, 실망, 덧없음, 처절함, 헛됨을 자주 느낀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하느님께 감사하기 보다는 하느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오히려 하느님을 애타게 찾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 끝에 다시 한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고 반복하여 강조하신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떠나간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예수님의 도덕적인 요구를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알면서도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받아들이지 않아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당신을 떠나는 것을 보시고 열두 제자들에게 “자, 너희도 떠나겠느냐?”고 말씀하신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까?”고 대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

빵을 먹을 때는 물이 꼭 필요하다. 빵은 주님의 몸인 성체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 동안 우리는 물인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 자! 이제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성체인 주님의 몸을 모신다면, “자! 너희도 떠나겠느냐?”는 주님의 물으심에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 떠나겠습니다”고 대답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車窓의 “내 탓이오”

지난해 우리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오’ 운동을 벌였었다. 金壽煥 추기경이 앞장서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였고 전국의 교우들이 큰 호응을 한 것은 물론 각 매스컴에서도 이를 앞장서 홍보했다.

지독한 ‘넘비’ 현상이다 전국민에게 팽배해 있던 지역 이기주의의 타파는 오직 모두가 내 탓이오를 실감있게 실천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이 때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나는 정권 아래에서 숨죽였던 온갖 국민적 의사가 봇물 터지듯 흘러나오고 모든 잘못을 남에게 미루는 못된 풍조가 만연된 때였으므로 ‘내 탓이오’는 신선한 충격, 그것이었다.

내 탓이오는 또 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교우들의 차량에 선보인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와 함께 항상 마음 든든함과 뿌듯함,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구호들이 가지는 의미의 행동성에 회의가 드는 일이 잦아졌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은 내 탓입니다”하고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 매사에 그리스도 안의 평화를 찾듯 행동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신과 의구심을 마음속에 키우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지는 기본이다.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 엷어져 가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스티커의 색깔이 퇴색되는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처음과 같이 항상 이어지지 않는 일은 없는지 우리 모두 한번쯤은 되돌아 볼 일이다. **☐**

숲정이 산책



고산 성당을 찾아서

함께 나누시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공동체의 삶은 개인 이기주의니, 물질 만능주의니 하여 가뜩이나 삭막해진 세상살이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 준다.

이곳 '고산 성당'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 중의 하나이다. 본당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곳 형제들은 오랜 신앙의 역사를 바탕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5년전부터 전개해 왔다.

오랜 숙원사업인 기념성당 신축사업은, 구역회를 중심으로 주체적인 신앙 쇄신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봉사와 나눔, 회생으로 준비되고 있다.

공사장 인부들의 식사제공을 위해 '한발식당'이 세워져 자체적으로 주식과 부식의 해결, 공소끼리의 당번제 실시를 통한 운영까지 모든 일이 신자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바자회는 그 작년 가을부터 준비를 한 행사라 한다. 뱀에 물릴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토리를 모으기 위해 산을 오르는 신자들, 호박죽을 만들기 위해 몇개월 전부터 호박을 걷어 들이고 말리며, 기금마련을 위해 어려운 농촌살림에도 불구하고 쪼개고 쪼개는 1가정 1통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 교우들. 감잎을 따서 감잎차로 상품화하는 작업을 구역이나 공소별로 참여하는 노력. 음으로 양으로 준비되어진 갖가지 농산물을 타 교우에 판매하기 위해 한밤중에 출발해서 새벽녘에 도착, 직접 조리한 일큰한 해장국으로 피곤을 털어내고 친교를 나누는 형제들.

"재미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전 신축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기도생활에서 자급자족의 노력까지. 조경사업까지 완성되면 우리의 노력만큼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한 신자분의 말씀 안에 은총의 기쁨이 충만하다.

몇십년 만에 찾아온 한여름의 폭염보다 더 뜨겁고 애절한 주님 사랑의 힘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일까?



11월1일에 봉헌식을 하게 될 고산 성당

그 아름다움이 타 교구와 비신자들의 마음속에도 불을 지르나보다. 서울의 4개 성당이 2차헌금을 통해 그들을 도우려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고산 지역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선행해온 노력인지 기금마련에 비신자들의 참여 또한 높다고 말한다.

"성당의 제반 비품준비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본당 신자들의 도움을 바라는 건 무리지요. 현재 농산물 판매와 본당 자체 2차헌금, 타 교구의 2차헌금, 또 저희 교구에서보다는 타 지역 성당에서 더 인기가 좋은 투갈다 품고상의 판매로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기금의 어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분주하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건축 자재들, 무더위 속에 공사장 작업에 땀흘리는 인부들, 봉사활동을 마치고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부정한 허리와 켄걸음으로 웃음 가득 집으로 향하시는 할머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인사말, 연장소리와 웃음소리에 질세라 아름답디 나무들 사이사이 꼭꼭 숨어서 우렁차게 울어대는 매미들!

오랜 역사를 가진 고산 본당의 100주년 행사들의 미와 기쁨들이 본당 신자들만의 것이 아닌 함께 나누어야 할 기쁨이라는 한 어른의 말씀을 떠올린다. 그동안 주님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이제껏 어려웠던 이 길을 잘 달려 왔다. 이제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마지막 은 힘을 다 쏟고 있는. 그들에게 힘겨운 짐을 조금 덜어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함을 느낀다.

우체국 400366-0015846~11, 농협 501109-51-003053
국민은행 501-01-0494-083(고산 성당)

취재 : 김지연(마리아)

건·강·상·담·환·영
성신당 한약방 성신당 건강원

이 흥 재(요셉) 이덕재(발도르메오)
☎ 245-9787~8 ☎ 242-9118

전주 우아동 기린중학교 정문 옆

이명복 박사의
시상·팔상 체질 감별
(이제 전주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 재 갑(다두)
정 원 미(클라우드미아)
중앙동 성원오피스텔 508호
☎ (0652) 231-6427~9
황명건강회

천 호 장 의 사
장례용품 생산 및 장례의전 서비스
24시간 상담, 대기

한 규 학(안토니오)
☎ (0652) 253-0744
71-0404

교리상식 ㉗

성바르톨로메오 사도축일(8월24일)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낸 후 갈릴래아로 향하던 도중에 3번째 제자로 뽑힌 필립보의 권유로 예수를 뵈고 "선생님,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요한 1, 49)라고 고백한 나타나엘이 바로 바르톨로메오 성인이다.

역사가 에우세비오에 의하면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성령강림 후 고국을 떠나 멀리 동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파하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대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한다. 성격이 순박하고 정직한 바르톨로메오 성인은 주의 부르심에 응하여 사도의 반열에 들자 일생을 진리를 위하여 바치고 투쟁하였다.

교구 소식

1. 우전 성당 기공식 : 8월28일(일) 오전11시30분, 주례-이병호 주교
 2. 교구청 직원 및 본당 사무장(원) 피정(1차) : 8월22일~24일 오후3시 천호 피정의 집
 3. 교리교사 피정(1차) : 8월27일~28일 오후2시 나바위 피정의 집
 4. 전주지구 성서교실 개강 : 9월2일(금)부터 오전10시, 오후8시 전동 성당 교육관, 문의-사무국(85-0041) * 급변 학기에는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5. 혼인강좌 : 8월28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6. 제8회 전주교구 M.E가족 큰 나눔 잔치 : 9월11일(일) 오전9시 윤희관
 7. 전주 '파티마의 모후'레지아 : 8월21일(일) 오후2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8.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원연수 및 임시총회 : 8월28일(일) 오전9시30분 치명자산 성당, 대상-각 본당 사무회장 및 교구내 제단체장
 9.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8월26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지도신부-이완재 신부
 10. 주부대학 : 8월27일(토) 오전10시 화산 성당, 주례-문학관 인성, 강사-이병기 교수(전북사대)
 11. 교도소후원회 월례미사 : 8월22일(일)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12.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대부모, 대자녀를 찾아드립니다. 문의 85-2935
- ※ 축! 영명 : 24일(성바르톨로메오) 문정현 신부님
28일(성아우구스티노) 한정현, 이 동, 김봉술 신부님

- **성소모임** 인보성체수도회 : 8월28일 오후1시30분 본원 (0652) 84-3231
- 가리따스수녀회 : 8월28일 오후2시 신동 성당 수녀원 (0653) 54-2636
- 살레시오수도회 : 8월28일 오후1시 인보성체수도회 (062) 512-0332
- 프란치스코회 : 8월28일 오전11시 광주 삼호가든 ㉠ (062) 522-4945
- 살레시오수도회 : 8월28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 33-257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에서의 환경보호(6)

가정에서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는 것과 냉장고의 내용물을 반드시 식혀서 넣는 것은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이다.

할 티 생 수

김 일 수(요 셉)
소 화 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마 일 생 수

생수판매 이익금은 장애인 복지 및 성전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작은예수회 박성구(요셉)신부
회 장
전주지역회 박병렬(베드로)
☎ (0652)225-4678
호출기 015-682-4678

원평 성당에서 직접 제매한

꿀 배

• 판매기간 : 8월29일~10월9일
• 구입문의 : (0658)43-0880-1
43-4236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 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여성
• 일시 : 8월28일 오후 2시~5시 (매월 마지막 주일)
• 장소 : 삼랑진 본원 (0527)52-4241

요십이 (1095) 김병호



주교관 주방 직원 구함

1. 지원자격 : 영세한 지 3년이상된 30세미만 여성 2. 제출서류 : ①자필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명기) 1통 ②세례증명서 1통 ③본당신부추천서 1통 3. 서류접수마감 : 8.31(수) 4. 서류접수 : 전주교구청 사무국(☎85-0041) 5. 기타 : 면접일자는 개별통보함.



우전 성당 기공식

8월28일(일) 오전 11시30분
주례 : 이 병 호 주교

용머리 바자회

<신축 기금 마련>

• 때 : 9월9일~12일
• 장소 : 용머리 성당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연중 제21주일

1. 날마다 그 날 성서구절을 한 번 더 읽으시다!

1. 사무장 휴가: 22일~27일

2. 혼인강좌: 28일 전 9시30분 가톨릭센터

* 결혼을 하실 분은 필히 혼인강좌를 수료하시고 신부님과 면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본당 전화번호부 광고 접수: 사무실

4. 모임: ①대교회(21일, 장엄미사 후)

②제대회(23일, 어머니미사 후)

③꾸리아(28일)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5. 금주 청소: 중노-8, 9반

차주 청소: 중노-10, 11반

□ 지난주 봉헌금: 966,070원 성모승천-525,000

□ 교무금: 880,000원 2차원금-281,530

◎ 연중 제21주일!

1. 성모회: 8월21일(오늘) 공식미사 후

2. 구역별장회: 8월28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성령쇄신특상회: 기간-9월26일(월)~10월1일(토) 오후 8시
장소-서학동 성당
회비-5천원

* 신앙인으로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사무실 및 화장실 신축공사와 수녀원 보수공사가 완공되었고, 이제 조경공사와 마당포장공사도 곧 완공됩니다. 신부님을 위시하여 사목회장님, 재정부장님, 그리고 불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주 전례: 해설-이동재(베네딕도)

독서-박수복(알렉산델)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종호(프란치스코)

독서-김영관(요한보스코) 김숙임(보나)

□ 지난주 봉헌금: 908,800원 □ 교무금: 502,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영

1.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ME 모임: 26일(금) 저녁 8시

3. 빈첸시오회: 27일(토) 오전 10시

4. 병자 봉성체: 26일(금) 오후 2시

5. 유아 세례: 27일(토) 오후 7시

6. 본당 신부님 휴가: 22~27일

7. 전입을 환영합니다: 정익준·요한, 고사동1반

8. 주일학교 비디오 기증: 오덕순·사비나(40만원) 감사합니다.

9. 성당 청소: 27일(토) 평화의 모후Pr, 순결하신 어머니Pr

10. 금주 전례: 해설-조옥례, 독서-이준철 부부

봉헌-김영기 가족

11. 차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신태실 부부

봉헌-박상기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52,710원 □ 교무금: 860,400원

□ 감사헌금: 340,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영

◎ 연중 제21주일입니다.

1. 금주: ①바나의 성모Cu(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2. 성좌회: 22일(월) 오후 6시

3. 성지회: 26일(금) 오후 8시

4. 교리교사 피정: 27일~28일, 나바위 교육관

5. 성마리아 Co: 27일(토) 오후 3시

6. 차주: ①L.M 야외행사(지리산 칠성계곡, 전 8시 출발)

②교무금 납부의 날

③혼인강좌(전 9시30분, 가톨릭센터)

7. 감사합니다: ①L.M회관 휴게실 쇼파 기증(배양길·마리노)

②시월헌금-100만원(서무시아, 정안필라, 안빛)

③시월헌금-10만원(익명)-2명

④심월조 감사헌금-445,000원(익명)

□ 지난주 봉헌금: 1,967,28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1. 모임: ①울뜨레아-27일(토) 저녁

②성모회-다음주일

2. 본당 발전을 위한 헌금: 다음주일

3. 제대꽃 봉헌: 이상을-3반, 최용선-2반, 안복례-1반.

4. 감사: 본당의 날 행사에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5. 금주 청소: 평화의 모후Pr

6. 차주 청소: 바다의 별Pr

7. 금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최경림 ②송정자

봉헌-황옥섭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박귀철 ②주영례

봉헌-최용선씨 부부

※ 용어해설

성당: 천주교 교회당, 주임신부가 상주하는 성당은 본당, 상주하지

않는 성당은 공소라고 한다.

갑실: 제단의 정면 또는 옆에 마련된 조그마한 장소로서 미사에서 축성된 밀떡(성체)를 넣어둔다. 성체를 모셔 두었다는 표시로 그 앞에 빨간등을 켜 두는데 이 등을 성체등이라 한다. 신자들은 성체를 모셔둔 갑실 앞을 지나갈 때면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한다.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사망 전에 신주를 모셔 두는 장등을 갑실이라고 하였다)

□ 지난주 봉헌금: 331,800원 □ 교무금: 266,000원

□ 성모 승천 대축일: 344,7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김삼근

1. 사목위원과 남성 L.M단원 단합대회: 28일 전 12시, 구이 성덕

다리, 회비-5천원.

2. 부제님 학사님 귀고: 23일, 방학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 M.E 나눔 모임(51차 환영): 28일 저녁 8시 사제관

4. 건축위원회 모임: 25일 저녁 8시 사제관

5. 병자 봉성체: 25일 전 9시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6. 교리교사 1차 피정: 27일~28일 나바위

7. 교도수후회 월레미사: 22일 전 10시30분 센터 3층

8. 오 말다 수녀님 세미나 및 휴가: 16일~9월2일

9. 회의: 성소후원의 날-오늘 공식미사 후

엠마누엘-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자모회-24일 어머니미사 후

울뜨레아-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10. 탈삼미사: 23일 후 4시 연명 이용선(요한) 구이(고시원 걸)

11. 가정미사: 24일 후 3시 13구역1반 이상준(사도요한)

12. 울의 짘아치(나나스키) 주문 판매: 3kg 포장단위(2만원)

관산 나운동 성당 신축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71,150원 □ 교무금: 1,116,000원